



영국

아동이 탑승한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 요청 쇄도 (Call to ban child-in-car smoking)

영국 Royal college 의 소아과학 및 아동 보건학의 신임 학장인 Terence Stephenson 은 BBC News 칼럼을 통해 아동이 동승한 차량의 경우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이미 성공적으로 이러한 법안을 도입한 국가들과 북아메리카의 여러 주를 예컨히 캐나다의 New Brunswick 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호주 남부의 주, 키프로스 국가)로 들며, 간접흡연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간접흡연은 아동의 흉부감염, 천식, 청력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금연 캠페인을 하는 NGO들은 아동의 탑승과 상관없이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Anti-Smoking Charity Action on Smoking and Health(ASH)의 대표, Deborah Amott 는 “차 안에서 담배 한가치를 피우는 것은 술집 등에서 저녁 내내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정도가 심한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며, 차량의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울 때 똑 같은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도로안전 NGO 들도 운전 시 흡연이 운전 중 집중력을 감소시켜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운전 중 핸드폰 통화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운전 시 흡연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건부 대변인은 내년에 있을 흡연 금지법 재검토 시, 법의 확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BBC News 2009년 6월 17일
<원문링크: <http://news.bbc.co.uk/2/hi/health/8104062.stm>>

세계보건기구

질병퇴치 기금과 보건의로 체계의 훼손 (Anti-disease funds could be harming health systems)

지난 10년 동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돈이 쓰여졌으며,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다른 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난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돈의 유입이 종종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분야 개발원조의 명목으로 쓰여진 기금은 1990년 56억 달러에서 2007년 218억 달러로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새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전후로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서방국가, 원조기관 및 자선단체들은 질병 퇴치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질병 퇴치 기금이 가난한 국가에서 어떤 효과를 보였으며, 병원 및 보건의료인력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WHO는 다양한 연구기관, 정부, 대학,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방대한 양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정적인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및 다른 질병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기관들이 정부보다 높은 보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국제기관 프로그램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질병들의 퇴치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가장 절실히 도움을 원하는 분야에,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알 수 없었다” 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질병 퇴치에 크게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결과

HIV 약이 개발도상국의 3백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급됨으로써,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 살충제가 처리된 모기장의 보급으로 말라리아로부터 목숨을 구한 아동의 수가 2001년 3%에서 2006년 23%으로 거의 8배 가량 증가하였다.

몇몇 프로그램들은 기대효과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HIV/AIDS 퇴치를 위한 거대한 기금이 보즈와나에 투입된 이후, 유아 사망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기대수명은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였다.

케냐에서는 모기장의 보급이 더 많은 임산부들이 진료소를 찾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The Guardian 2009년 6월 19일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world/2009/jun/19/funds-investigation-aids-tb-malaria>>

미 국

오바마 “정부주도의 건강보험이 민영보험회사들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Obama Says Government Health Coverage Plan Would Not Hurt Private Insurers)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정부가 운영하는 새 건강보험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의회 내 민주당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이에 못 미치는 안을 담은 법안에 서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보험과의 경쟁을 유발하며 치솟는 건강보험비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공공보험이 민영보험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민영보험회사들과 경쟁하게 될 정부 주도의 보험이 보험회사들의 지나친 행동을 억제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공보험이 사보험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불평을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기 두 시간 전 민영보험사들은 공공보험안에 대한 총공격을 퍼부었다. “민간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공공계획을 창출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사업은 처음에 어떤 구조로 시작되든 간에 결국은 내재된 이점을 활용해 건강보험시장을 잠식하고 말 것입니다.” 미국건강보험사협회(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 회장 Karen M. Ignagni씨와 청십자청방패협회(Blue Cross and Blue Shield Association) 회장 Scott P. Serota씨가 상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밝히고 있다.

미 의회 내에서도 공공보험안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노스다코타(North Dakota)의 상원의원 Kent Conrad씨와 일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새로운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시스템의 대안으로 비영리 소비자조합을 고려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설립될 것이지만 설립 후부터는 민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와 투자수익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 30억에서 4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Schumer씨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한 두 보

험회사들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공공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면서 정부주도의 공공보험은 건강보호시스템 전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보험이 일반 행정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면 민간 보험회사들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New York Times 2009년 6월 24일

<원문링크: http://www.nytimes.com/2009/06/24/health/policy/24health.html?_r=1&ref=policy>